불심 빛난 그들의 메달!

2008베이징올림픽서 붓다의 아들딸들 선전

레슬링 박은철, 배드민턴 이용대, 태권도 손태진, 역도 윤진희, 체조 유원철, 양궁단체 임동현 · 박경모 · 이창환 선수(왼쪽위부터).

인류 화합의 올림픽 정신은 순위가 아닌 열정에 있다.

그러나 참가에 의의를 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삶의 의미가 성공 그 자체보다 전력을 다하는 과정에 있기에 본질은 승리가 아니다. 부처님도 일찍이 승패를 초월한 승리에 대해 말씀하셨다. 패자의 두려움과 승자의 오만으로부터 해방될 때여야만 비로소 평온의 화합이 가능하다는 진리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의 세계 · 하나의 꿈'을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이다.

세계인의 문화축제 제29회 하계 2008베이징올림픽이 8월 24일 폐막됐다. 17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4년 후 런던올림픽을 기약한다. 총 204개국 약 1만5000명의 선수들이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펼친 각본 없는 투혼의 드라마였다. 한국은 총 28개 경기종목 중 25개 종목에 출전, '금11 · 은10 · 동6'으로 메달 종합 순위 7위(8월 22일 기준)를 기록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응원한 국민 모두의 값진 성과다. 그 중에서도 부처의 아들딸이 선사한 승전보는 2000만 불자가슴에 벅찬 환희심을 안겨준다.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불자선수는 임원 포함 총 54명이다. 그중 금메달을 가장 먼저 안겨준 종목은 8월 10일 올림픽그린양궁장에서 펼쳐진 양궁 여자단체전이었다. 윤옥희(23 · 예천군청) 선수를 위시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은 홈팀 중국을 224대 215로 꺾으면서 올림픽 6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다음날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금메달 행진은 이어졌다. 박경모(33 · 인천계양구청), 이창환(26 · 두산모비스), 임동현(22 · 한국체대) 선수가 출전한 결승전에서 한국은 227대 225로 이탈리아를 꺾고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이어 4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 효자종목 양궁은 개인전 활약으로 이어졌다. 8월 14일 개인전에서 윤옥희 선수가 동메달, 박성현 선수가 은메달, 15일에는 박경모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윤진희(22 · 한국체대) 선수도 한국 역도 부분 사상 두 번째 메달을 들어 올렸다. 10일 베이징대 항공우주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역도 53kg급 경기에서 인상 94kg · 용상 119kg을 들어올려 합계 213kg으로 영광의 메달 주인공이 됐다.

레슬링 종목의 박은철(27 · 주택공사) 선수는 12일 중국농업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그레코로만형 55kg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경기 종료 30초 전 옆굴리기로 동점을 획득 승리의 메달 주인공이 됐다.

금메달 윙크 세레모니로 올림픽 완소남에 등극한 배드민턴 이용대(20 · 삼성전기) 선수는 17일 베이징 공과대학 체육관에서 벌어진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에서 승전보를 전했다. 세계랭킹 1위 인도네시아의 노바 위디안토와 낫시르 릴리야나를 2대 0(21-11 21-17)으로 격파해 정상에 올랐다.

베이징 국가실내체육관에서 19일 열린 남자체조 평행봉 결승에서도 유원철(24 · 포스코건설) 선수가 영광스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전사 손태진(20 · 삼성에스원) 선수는 21일 베이징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68kg급에서 미국의 난적 마크 로페즈를 3대 2로 물리치면서 금메달을 획득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열정의 2008베이징올림픽, 세계 최고의 철인을 가리는 승패의 현장에서 인류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직한 땀의 결과를 의미하는 올림픽의 참된 가치일 것이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 희섭 대선사

쉰밥도 씻어먹는 청빈함 … 청정 계율 사표

"코끼리와 토끼는 물을 건너는 방법 달라"

희섭 스님은 한암 스님의 상좌로 법명은 혜원(慧園)이다. 필자가 처음 상원사 선방에 들어갔을 때는 원주로서 지객 별좌일까지 겸하고 있었다.

스님은 필자에게 미감을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

"상원사는 194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한암 스님이 중건한 것이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선, 염불, 간경, 의식, 가람수호 등 다섯 가지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선원 규례는 각기 소임대로 실천하게 되어있지만 금년에는 모인 대중이 모두 18명 밖에 되지 않으니, 주실 밑에 있는 제1좌와 제2좌가 없고, 열중, 병법, 헌식, 지전, 소지, 지객, 서기, 원주, 다감, 별좌, 시자, 공사, 미감, 마호, 정통, 종두, 간병, 화호만이 짜여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소지, 서기, 마호, 정통, 화호를 거사와 처사들이 맡고 있으니, 1인 2역 내지 3역을 할 때도 있다. 상당 설법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하고, 운력은 밭일, 집안일 할 때만 동원된다."

스님은 평균 5·6일에 한번씩 강릉 포교당에 가서 시주를 하여 장을 봐 왔다. 짐이 많을 때는 어쩌다가 거사들이 마중 나가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일백 근이 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천천히 발끝만 보고 걸어오신다. 온 몸이 땀이 젖어 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무겁다는 말씀 한 마디 하지 않고,

"가련하구나 우리 인생. 허망하기 그지 없네."

하고는 그대로 개울에 들어가 몸을 씻으신 뒤 바로 선방으로 들어가신다. 석달 동안 누워 주무시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때는 고사리 버섯을 다듬다가도 그대로 삼매에 들었다.

산에 오를 때는 으레 한암 스님 '참선곡'을 읊었는데, 하도 여러 번 들어 잊혀지지 않는 곳이 있다.

"어제 같이 청춘시절 어언간 백발실세.

백옥같이 곱던 얼굴 검버섯이 웬일인가.

예전 사람 공부할 때 하로 해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오늘이 몇 일인가.

임술년 정월 십오일이올시다."

한번은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시간이 늦어 오후 2시에 쌀만 내어 밥을 지었다. 급히 지은 밥에 돌이 섞여 뱉아 놓으니 그것을 다시 조리로 일어 홀딱 입에 넣어 버렸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다시는 밥 한 톨도 버릴 수 없었다. 그뿐 만이 아니다. 감자밥이나 옥수수 밥이 쉬면,

"대중스님들께 아뢰옵니다. 한 술갈씩이면 천도되오니 찬물에 말아 드십시오."

공양주, 채공, 미감이 쩔쩔매고 있을 때면 이따금씩 이런 말씀을 하여 남은 밥을 처리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쌀을 낼까 그것이 그대로 공부였다.

한암 스님께서 콩나물 하나를 줍기 위해 오리 길을 걸으셨다더니, 이 산중의 가풍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다.

"스님은 왜 그리 눕지 않고 앉아 계십니까?"

하고 누가 물으면,

"노는 입에 염불이요."

하고 다시 두 마디도 않는다. 초하루 보름 법문도 따로 하지 않고 한암 스님 선문답 21조를 있는 그대로 읽었다.

"선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도요. 도가 곧 선이다. 그러므로 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제 마음을 믿고 화두를 가지고 철저히 정진하라.

옛 사람이 말하기를 힘 아니 드는 곳이 곧 힘을 얻는 곳이다 하였으니, 여실히 깨달을지언정 경계를 쫓아가지 마라.

관문을 지낸 자는 나루터를 물을 필요가 없다. 잣나무도 성불한다 하였는데 옛 스님들이 어찌 우리를 속이었겠느냐. 단지 큰 코끼리와 작은 토끼가 물을 건너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또 어쩌다가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 물으면,

"성색(聲色)을 초월하여 무엇 하려 하는가. 초월한다는 그 생각이 병통이니 공부가 익는 것은 밥 익는 것 하고는 다르다.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요. 무명실성이 곧 불성이라 하였지 않는가. 단지 공부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해도 부처고 달도 부처가 된다."

이렇게 답하되, 이를 드러내고 웃는 법이 없었다.

오대산 도량에 무뱀이 많아 솔뚜껑 위에도 올라앉고 밥통 주위에도 도사리고 있다. 무심코 부엌에 불을 지피다 보면 두 마리, 세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 나온다. 사람들이 놀라 질겁을 하면, "나무 불!" 하고 고개를 떨군다. 세종대왕이 기도 왔다가 대중 스님들께 은전 금전을 많이 주어 공부 못한 수좌들이 죽어 도량지킴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도반끼리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떻게 하겠는냐는 것이다.

청정하고 엄한 계율 눈서리와 같고/ 중생을 섬기는 마음 수미산 같아라/ 앉아서 자고 서서 공부하는 희섭 스님이여/ 지금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둑첸카규' 법왕 초청 지혜관정 법회

서울 길상사,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인 서울 길상사는 티베트의 '둑첸카규' 법왕을 초청, 지혜관정 법회를 봉행한다.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길상사 극락전에서 열리는 이번 지혜관정 법회는 길상사 창건 11주년 기념법회로 마련됐다.

티베트 밀교의 독특한 지혜관정 법회는 일체 중생에게 본래 구족되어 있는 불성의 종자를 본존불의 가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전통 관정의식이다.

'둑첸카규' 법왕은 티베트의 4대 종파 중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겔룩파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까규파의 둑바까규 계보의 최고지도자로 12대 째 환생한 스님으로 알려지고 있다. (02)3672-5945 김성우 기자

조계종 무량회 몽골법당 개원

조계종 종책모임 무량회(회장 향적)는 8월 21일 서울 광희동 법당에서 몽골불자들을 위한 법당 및 쉼터 개원식을 봉행했다.

몽고타운 주변에 20평 규모의 공간을 임대해 마련된 몽골법당은 한국 거주 재한몽고불자회(회장 알타호이가) 불자들이 모여서 법회를 봉행함은 물론이고, 외국생활의 애환을 달래주는 쉼터 역할도 할 전망이다. 후원=(010)5717-5229

김성우 기자

불교지도법사 과정(3년)
2008년도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 목	일 시	개 설 경 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대지도론 ②	김형준 교수
		화엄현담 ②	정엄 스님
근본불교학과 (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금 강 경 ⑥	최봉수 교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시간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8월 1일 ~ 9월 9일(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화엄현담 (9월 9일)화요일 • 대지도론(9월 22일) 월요일
• 근본불교학과(금강경) : 10월 9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
2008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사찰음식문화학과〉, 〈요가삼밀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30명) (포교사,법사과정)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30명) • 요가삼밀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8월 1일 ~ 9월 9일 • 입학금 : 250,000원

전형방법	개 강 일 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8월 접수중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9월 9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다도학과,법사과정) : 9월16일(화)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 례 문 화 학 과) : 9월 9일(화)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미 술 학 과) : 9월 9일(화)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 문 학 과) : 9월 4일(목)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찰음식문화학과) : 9월 3일(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요가삼밀학과) : 9월 7일(일)

2008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1. 교과목 및 교수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의식반	2 년	매주 토요일(오후 2시~5시40분)	심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목요의식반	2 년	매주 목요일(낮 12시)	문종순법사	실 기
• 전통범패반	2 년	매주 금요일(오후 3~5시)	인각스님	실 기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토요반 30명(2년) • 범패반 30명(2년) • 목요반 20명(2년)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9월 11일 목요일 까지	• 매주 토요일(토요반) 오후 2:00 ~ 5:40 • 매주 목요일 낮 12시 (목요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범패반)

3. 개강일시 9월 6일(토) 오후 2시 (토요의식반)
9월 11일(목) 낮 12시 (목요의식반)
9월 5일(금) 오후 3시 (범패의식반)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원서교부및 접수
본 대학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